

파리 대학원생들 5·18 다큐 제작

전남대가 한국 민주화에 끼친 영향 조명... 내년엔 광주 다큐 추가 제작

프랑스 파리 대학 대학원생들이 전남대를 중심으로 한 5·18과 한국 민주화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에스트 마르 라 발레 대학'의 웹문화기술학과 대학원생 7명(지도교수 에릭 마이에)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5일 동안 한국 민주화의 주요 장소이자, 다큐멘터리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전남대 곳곳을 촬영하고, 관계자들을 인터뷰했다. 다큐멘터리 주제는 '한국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다.

이들은 5·18 항쟁의 도화선이 된 '전남대 정문'을 시작으로, 법대 박물관 열사 추모비, 사회대 운상원 열사 기념물, 인문대 김남주 시인 기념물 그리고 사범대 1호관 벽화 등을 통해 전남대학교가 한국의 민주화에 끼친 다양한 모습들을 조명할 예정이다.

프랑스 대학원생인 로망 듀랑씨는 "지난 가을부터 한국 역사의 기억이라는 주제 아래 전남대를 중심으로 사전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방문에서 관련 현장에 대한 촬영과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파리 에스트 마르라발레대학에서는 지난해 5·18과 광주에 대한 첫 번째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바 있으며, 올해는 아예 전남대를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



파리 '에스트 마르 라 발레 대학'의 대학원생들이 전남대의 민주화운동 관련 공간을 촬영하고 있다.

고 있다.

이들은 5·18 40주년이 되는 내년에 광주에 관한 다큐멘터리 추가 제작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대 불문학과는 이들의 광주방문과

사전조사, 현지 안내 및 통역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상 자막, 내용 감수 등은 전남대 프랑스문화지역학연구소(소장 하영동)가 돕기로 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오월결상' 서울 명동성당에 설치

정화수 담은 제기 모양 제3호 제막식... 전국·세계로 뻗어가는 5·18 정신 기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주화의 현장인 서울 명동성당에 5월 영령들의 정신을 기리는 '오월결상'이 설치됐다.

'오월결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9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앞에서 제3호 '오월결상' 제막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명동성당을 설치 장소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의 공간이었으며 민주화·인권운동 피난처였던 점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명동성당은 5·18과 깊은 인연이 있다. 1981년 1월23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12명이 사형 등을 확정받을 때 피고인 가족들은 경찰 추적을 피해 명동성당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농성 시위를 했다. 1987년 5월18일에는 명동성당에서 5·18 제7주년을 기념하고 박종철군을 추모하는 미사가 거행됐고, 1988년 5월에는 조성만 열사가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외치며 명동성당 교육관 4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번에 설치된 '오월결상'은 이른 새벽 우물에서 길어 올린 정화수를 담은 제기 모양(높이 50cm·지름 1m)으로 제작됐다. 둥근 모양은 5·18 정신이 전국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는 바람을 담았다.

또 사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한



오월결상위원회가 9일 서울시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제3호 '오월결상' 제막식을 열고 5월 영령들을 기리는 한화를 하고 있다. (5·187기재단 제공)

안내문 없이 결상 뒷쪽에 '오월 결상 1980. 5. 18 ~ 5. 27'만 적어 놓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오월결상'은 기존의 기념조형물 양식을 탈피해 친근함을 주고, 실용성까지 가미했다"며 "1980년 5·18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우리 시대의 고백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희중 대주교(한국 천주교 주교회

의 의장), 홍세화 장발장 은행 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위원회는 지난 2018년부터 전국 민주화 현장에 오월 결상을 설치하고 있다. 1호는 1987년 전두환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며 황보영국 열사가 분신했던 부산시 서면에, 2호는 1986년 5·18 진상 규명을 외치며 강철열 열사가 분신했던 목포역광장에 세워져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원룸서 20대 여성 강제추행 시도한 40대 검거

담배꽂초 DNA 검사로 11년전 성범죄도 발각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유전자(DNA) 조사 결과 11년 전 성폭행 미수 혐의까지 드러났다.

9일 광주남부경찰은 여성을 성폭행·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강간 미수 등)로 이모(47)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9일 새벽 4시 40분께 광주시 남구의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또 지난 2008년 9월 12일 밤 9시50분께 광주

시 남구 한 마을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미수에 그치고 도주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3월 범행 이후 도주 과정에서 피운 담배꽂초에서 DNA를 채취·분석해 이씨를 붙잡았다. 또 11년 전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던 흉기에서 채취한 DNA와 비교 분석 과정에서 동일범임을 확인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교대 남학생, 여자화장실서 동기 여대생 몰카 찍다 덜미

광주교육대학교 남학생 A(20)씨가 화장실에서 동기 여학생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북부경찰은 "A씨는 지난 25일 새벽 1시께 수학여행시 들른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폰으로 여학생을 몰래 촬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1일 접수돼 수사중이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몰카 촬영 혐의는 인정했지만, 휴대폰과 노트북을 분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정보 분석(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광주교대 교내에는 '예비교사의 불법 촬영 행위를 고발합니다'라는 대자보 게재와 함께 같은 내용의 글이 학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A씨에 대한 퇴학 조치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학측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대치사·암매장' 고준희양 친부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동거녀는 10년 선고

고준희(사망 당시 5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친부와 동거녀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부 고모(38)씨와 동거녀 이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암매장 등을 도운 이씨의 모친 김모(63)씨에게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에 대해 "피고인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 양이 때를 쓴다며 학대를 일삼고, 같은 달 24일 자정께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 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준희양이 사망하자 이씨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한 아산으로 이동해 준희 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서류봉투 백색가루 보고 마약 의심 택배 신고...알고보니 연꽃 분말



○...영암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에 마약으로 보이는 백색 가루가 들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지만 연꽃분말로 밝혀지는 해프닝.

○...9일 영암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께 영암 삼호읍 한 아파트의 경비원이 걸면 일부가 뜯어진 서류봉투에 담겨진 흰색가루를 보고 마약으

로 의심해 신고를 했었다는 것.

○...택배 주인인 베트남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화분 비료로 쓰기 위해 베트남에 사는 친구에게 구입한 것이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시 결과 마약 성분은 아닌 것을 알았지만, 정확한 결과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고 설명.

/영암·전북한 기자 jbh@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